

인권단체 베이징올림픽 비판에 곤혹스런 IOC

1개월 앞두고 각국 외교적 보이콧 “의복에 강제노동 입증 노력 미흡” 중국, 위구르족 인권탄압 비난 휴먼라이츠워치 위문장 사퇴 촉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꼭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겨냥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위구르 지역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역과 인권 탄압을 문제 삼고 있는 인권단체인 위구르강제노역 종식연합이 베이징올림픽 공식 의복의 제조에 있어 강제 노동이 동원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을 IOC에 요구 중이라고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이와 관련, IOC가 올림픽 공식 의복이 면화 생산지인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 없이 제조됐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지금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베이징올림픽에서 IOC의 유니폼과 다른 의복에 대한 공식 공급업체인 중국의 거대 스포츠웨어 기업인 ‘안타 스포츠 프로덕츠’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장산 면화를 제품 제조에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지난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 이 회사는 이날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WSJ의 요구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국제 인권 단체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은 신장 지역에서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강제수용소에 가둬 동화할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종속 말살(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서방 국가들은 신장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 내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천명

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신장에서의 강제 노역과 인권 탄압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다. IOC는 이와 관련, 이날 성명을 내고 “안타가 제공한 유니폼에 대한 최근 제3자에 의한 감사 결과 강제 노동과 관련한 아무런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지속가능한 구매를 위한 IOC의 기준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공급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특정 목적의 실사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구르 인권 활동가들과 강제노동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의 연합체인 위구르 강제노역종식연합은 이날 IOC가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논의하지는 자신들의 거듭된 요구를 묵살했다고도 비판했다. 이 단체는 IOC 인권담당 책임자와 주고받은 이

메일을 공개하면서 이 이메일에 IOC의 무반응과 무례가 드러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을 지낸 이 단체의 베네트 프리먼 대변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 신장에서의 강제 노동 우려와 인권,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IOC측에 보냈다. IOC의 인권 담당 책임자인 마갈리 마르토비츠는 지난달 보낸 답장에서 “IOC는 귀하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면서 논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것을 포함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곧바로 IOC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으며, 쌍방향 대화와 대화 후 내용을 공개할 수 있길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다시 보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비롯한 IOC 수뇌부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캐나다 전세기 연말 멕시코 가며 ‘노마스크’에 술·춤 파티

지난 연말 멕시코행 캐나다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집단으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파티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캐나다 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캐나다 저가 항공사인 ‘선원’ 소속의 여객기가 멕시코 휴양지인 칸쿤으로 운항하는 동안 승객들이 기내에서 집단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즐기는 장면을 담은 파티 동영상인 소셜 미디어에 공개됐다. 승객들은 케백의 유명 TV 리얼리티쇼 출연진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으로 해당 여객기는 한 전문 업체가 이들 전용으로 알선한 전세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을 보면 이들은 기내 통로에서 일어서거나 좌석에 앉은 채로 보드카 등을 병째로 돌려 마셨으며, 한 여성은 전자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모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항공기에 적응하는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동영상은 몬트리올의 한 지역 언론이 처음 보도해 일반에 알려졌다.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르 엘가브라 교통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선원의 항공기 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 뉴욕 연방준비은행 “공급망 혼란 정점 찍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지만 이미 정점을 찍을 수 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뉴욕 연은은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공급망 혼란 정도를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인 국제공급망압력지수(GSCPI)를 개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뉴욕 연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이 경제봉쇄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공급망 혼란은 2011년의 일본 동일본대지진과 태국 홍수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급망 혼란이 2020년 여름 잠시 완화되기도 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한 2020년 겨울부터 다시 급격하게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뉴욕 연은은 현재 GSCPI가 4.5로 분석대상으로 삼은 1997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태지만, 공급망 혼란이 이미 정점에 달했으며 앞으로 완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GSCPI는 월가의 여러 공급망 관련 지수를 통합한 것으로 1997년 이후 공급망 상황을 보여준다. 뉴욕 연은은 발틱연임지수(BDI)와 하팩스지수, 노동부 물가지수 중 항공 화물수송비용 등 국가 간 운송비용을 보여주는 지표에 주요 요인을 제거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을 추가해 GSCPI를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코로나 하루 확진자 100만명 넘어서 미국 미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비상인 가운데 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브록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주민들이 타고 온 차량이 검사소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전날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8만 2549명으로 집계됐다. 한 국가에서 1일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인니·말레이시아, 새해부터 곳곳 ‘물난리’

폭우로 인한 홍수...이재민 수만명

우기에 접어들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곳곳에서 새해부터 폭우로 인한 홍수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가족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5일 안타라통신,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은 며칠째 쏟아진 집중 호우로 홍수가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2만4천명

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수마트라섬 아체주의 피해가 가장 컸고, 파당, 잠비 지역 등도 물에 잠겼다. 집중 호우를 견디지 못한 강둑이 곳곳에서 터지면서 주택이 물에 잠겼고, 시민들은 최소한의 소지품만 챙겨 고지대로 대피해야 했다. 아체주 주민 무자키르는 “연간 5~8차례 홍수를 겪지만, 이번 홍수가 가장 심각하다”, 또 다른 주민 샤리푸딘은 “집에 있는데 물이 가슴까지 차올

랐다”고 긴박했던 순간을 전했다. 이웃 나라 말레이시아는 지난달 17일부터 사흘간 쏟아진 폭우로 50여명이 숨지고 11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데 이어 연초부터 또다시 7개 주에서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치면서 홍수로 이어졌다. 말레이시아 시민들은 홍수 조기경보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고, 복구 작업마저 더디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스마일 사브리 아랍 말레이시아 총리는 전날 홍수 피해가 심각한 조호르주의 한 마을을 찾아가 이재민을 위로하고, 재건을 약속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